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북핵, 동결-감축-폐기 3단계 접근이 현실적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예고된 대로 바이든 새 행정부는 앞으로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할 것 같다. 민주당 행정부가 늘 그래왔듯이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명분과 원칙을 존중하고 동맹 강화와 다자적 접근을 통한 대외 전략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 질서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해 온 토니 블링큰을 첫 국무장관에 지명한 것은 그가 클린턴 정부 시절부터 오바마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깊이 관여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대북관은 상당히 원칙론적이다. 바이든 당선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불량배라고 불렀듯이 블링큰도 김 위원장을 폭군이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벌여 왔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포괄적행동계획(JCPOA)이라는 이란 핵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관여한 바 있다. 북핵 문제도 트럼프식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적인 부분부터 꼼꼼히 따져 나가는 바텀-업 방식의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북아 정세에 있어 한·미·일 3자 협력 구조를 탄탄히 함으로써 북한을 후원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한 인터뷰에서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쥐어짜야 하며 경제적 압박을 위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만 봐도 그의 접근법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실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거의 유사하다.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었고 블링큰 역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참모였기 때문에 큰 틀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원칙 외교, 다자 협력 외교를 통해 초국가적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이끌었고 이란·쿠바·미얀마 등 적대 국가들과도 관여 정책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초기 과감한 접근을 시도하려 했으나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강경 대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물론 북미 간 협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시키고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식으로 하여 '2.29 합의'를 도출하였지만 이 역시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좌초되고 말았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전략적 인내로 회귀했다. 이어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했으나 이 역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핵 위기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북핵 협상과 관련하여 지나온 역사를 리뷰해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대부분의 북핵 위기가 우리와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러한 과도기의 틈을 활용하여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해 왔고 결국 이에 대한 대응은 강경 대북 정책으로 귀결되었다. 강경한 대북 정책은 '도발-보상-파기'의 악순환을 형성하면서 다시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초래하는 패턴을 반복시켜 왔다.

바이든 새 행정부와 블링큰 국무장관 후보자 역시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 불용의 입장에서 원칙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오판하여 또다시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든 새 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협상장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의 북미 간 합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한반도는 다시 북핵 위기의 긴장과 위협 속에 격랑 속으로 표류할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간 동안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임을 선언하였다. 과거와 같이 불완전한 핵 능력을 가지고 핵 능력의 모호성을 유지한 채 살리미 전술을 통해 딜을 하려는 시기는 지났다. 북한의 핵 위협은 훨씬 강화되고 현실화되었다.

바이든 새 행정부는 북한을 방치할 게 아니라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전략과 입장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북핵 협상에 나서야 한다. 동결-감축-폐기에 이르는 3단계에 맞는 상응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북한 핵 폐기를 유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과거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남북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여러모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종교칼럼

저 너머를 향하여

중 현
광주 증심사 주지

호수는 청명한 가을을 품고 있다. 화순 만연사 아래 동구리 호수공원은 화순군민들이 즐겨 산책을 오는 곳이다. 휴일이라 삼삼오오 산책 나온 가족이나 친지들이 대부분이고, 나처럼 혼자 다니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모두들 티 없이 맑은 가을 하늘처럼 마냥 행복해 보인다.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 아래로 정겨운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들이 불교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조금 더 많은 행복과 조금 더 적은 고통? 이것 외엔 달리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듣고 있던 이어폰에서 내레이션이 흘러나온다. "아파트 평수, 자동차 배기량, 은행 잔고. 그의 희망은 이미 그런 것이 아니었다." 자우림의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시작 부분이다. 모두 소소한 행복들을 책임져 주는 것들이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희망도 소망이 아니라 한다. 그러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불교는 지금의 삶 자체가 고통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삶을 넘어 해탈의 길, 열반의 세상으로 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종교가 인간에게 친숙하던 시절엔 불교 역시 종교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고 또 그만한 역할을 했다. 종교가 푸대접받고 있는 오늘날, 종교로서 불교를 추앙하는 부류는 여전히 존재한다. 반면 신앙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으로 불교를 끌어오려는 흐름 또한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전통적인 불교 안에서도 이런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명상은 사업이 되고, 절집에서 자연스럽게 힐링을 말하고, '템플'에서 '스테이'하며 지친 마음을 쉬어 가라 하고 있다.

물론 불교를 향한 첫걸음은 대개 고통스러운 삶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 것,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불교는 지금의 삶을 인정하고 그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지한다. 그리하여 지금의 삶을 넘어서지 않고는 삶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털어낼 방법이 없음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도한다.

이곳 호수공원에서 나는 삶의 관찰자이다. 삶의 관찰자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삶의 참여자만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다. 인생의 관찰자는 우리들 삶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실존의 불안, 나로 인한 고통들을 직시한다. 삶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매순간 자신의 삶을 관찰해야 한다. 관찰은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삶의 무게를 덜어 내는데 그저 바라보는 것만한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의 삶 너머를 지향하려면 그저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된다. 삶 전체를 건 결단을 요구한다. 그래야 지금의 삶을 너머 비상할 수 있다. 즉 깨달을 수 있다. 지금의 삶을 버리는 결단이 없는 깨달음은 모두 거짓이다.

어린 새는 둥지에서 오로지 먹기만 한다. 먹고 또 먹어서 제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비축한다. 어느 순간, 마침내 어린 새는 둥지를 떠나 비상하기 위한 날갯짓을 시작한다. 주저하고 망설이고 안주하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린다. 땅에 떨어져 죽더라도 언젠가는 둥지를 박차고 날아올라야 한다. 그것이 어린 새의 운명이다.

태어난 계곡을 떠난 어린 연어는 멀리 태평양 바다로 나간다. 어린 연어는 드넓은 바다에서 어른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다시 고향의 계곡으로 돌아와 산란한다. 그러나 가끔 바다로 나가지 않고 고향의 계곡에서 어른이 되는 염치 없는 연어도 있다. 태평양 바다에서 돌아온 연어에 비하면 치어나 다름없을 정도로 체구가 왜소하다. 마치 다른 물고기 같은 그도 역시 산란하기 위해 우리들 눈에 익숙한 덩치 큰 다른 연어들 틈새를 기웃거린다.

나를 포함한 모든 중생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 어린 새가 창공을 갈망하듯, 삶 저 너머를 향한 동경과 열망은 아닐까? 기분 탓인지, 어깻죽지가 간질간질하다. 마침내 날개가 나올 모양이다. 그러고 보니 아직 날개도 돋지 않았다. 우리는 날아오르기 위해 작은 날개를 하염없이 퍼덕이는 어린 새일까? 아니면 바다로 나가지 않은 얍삽한 연어일까?

기 고

안녕하세요. 정규직 박준성입니다

박 준 성
청년문화허브 선임 간사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몇몇 순간에 이전에 살아왔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때가 있다. 나에게는 '지역 주도형 청년 문화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가 그랬다.

내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의 시골이다. 안동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은 원하는 과를 찾아서 광주로 오게 되었다. 스무 살에 느꼈던 광주는 낯선 도시였다. 하지만 대학을 다니고, 군대에 다녀오고,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진학하며 인생의 3분의 1을 광주에서 보낸 뒤로는 오히려 고향이 어색해졌다. 대학원을 수료하고 나는 광주를 떠났다. 내 유일한 능력인 글쓰기를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향은 생각보다 더 낯설었다. 그렇게 백수로 살기를 일 년 반. 취직에 대해, 그동안 배워 왔던 것들에 회의감이 들었다. 그런 와중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광주문화재단의 '지역 주도형 청년 문화 일자리 지원 사업'을 보고 단숨에 지원서를 썼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원히 패배한 인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만 같았다.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참여 단체 중 내가 가진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었다. 문화 기획과 공익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에 취직하게 되어 첫 출근을 준비하는 아침, 거울을 보며 갑자기 두려워졌다. 스물아홉 나이에 첫 취직인 탓이었다. 취직에 성공했던 학교 선배의 말도 떠올랐다. "야 다 필요 없고 엑셀 배워 엑셀" 자격증은 하나도 없고 스펙의 대명사인 토익 시험도 본 적이 없었다. '정말 이곳은 내가 필요한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사무실 문을 열어젖혔을 때가 아직도 기억난다.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이 지원 사업의 좋은 특징 중 하나는 일터에서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업무 교육을 한다는 것이었다. 지출 결의서 쓰는 방법을 배울 때는 정말 울고 싶었다. 자꾸 계산을 틀리거나 중요한 요점을 빼먹었다. 또 다음 날 아침에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인쇄물을 뽑다가 프린터가 갑자기 먹통이 돼서 고치다가 밤 10시가 넘었을 때는 좀 서글펐다. 그래서인지 보통사람보다는 프린터를 잘 고치는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니 새삼 지금의 내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애초부터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첫 월급의 기억도 떠오른다. 자취를 하였기에 라면을 자주 먹었다. 첫 월급을 타던 날, 편의점 아닌 라멘 가게로 갔다. 면을 추가하고 차슈까지 얹어 한 그릇을 비웠다. 한 끼에 1만 1000원을 썼다. 이전에는 없던 사치였다. 정말 너무 맛있었다. 왜 이런 맛을 모르고 살았나 싶었고 인생의 절반을 손해 본 기분이었다. 그러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다. 부모님은 이런 음식을 드셔 보셨을까? '집에 가면 사드려야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동안은 라멘을 사드릴 수 없었다. 안동엔 라멘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참 빠르다. '청년 문화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지 2년이 지났고 이제 지원은 끝났다. 지원 사업이 끝났어도 나는 이곳에서 계속 일하게 되었다. 이른바 정직원이 된 것이다. 배우고 익히며 온갖 실수를 했으나 나를 채용해준 대표님은 내게 '함께할 수 있어 참 다행이다'라고 말해 주었다. 그 말이 못내 부끄러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대표님과 일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단체의 이익과 미래를 더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 사업에서 참여 단체에 더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교육비를 책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를 가르치던 대표님의 노고를 생각하면 솔직히 나라면 못할 일이다. 또 만약 내가 일을 그만두었다면 참여 단체에는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 남았을지 모르겠다. 그 밖에 광주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여러 교육은 좋은 공부가 되었다. 특히 VOD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줘 언제 어느 때고 직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다.

광주문화재단에서 사업 종료 선물로 보내준 것들 중에 만년필이 있었다. 왠지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나도 사인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인 듯하다. 앞으로 지출 결의서 사인은 이 만년필로 할 것이다. 내 선택과 결정 그리고 삶의 흔적이 만 년 동안 남길 바라면서 말이다.

社 說

혁신도시 부영아파트 공화국 두고만 볼 건가

나주 혁신도시가 '부영아파트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조짐이다. 나주시가 혁신도시 내 한전공대 잔여 부지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주)부영주택의 '부영CC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 취재 팀이 나주시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약서'를 보면 사업 시행자인 부영주택은 골프장 잔여 부지의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20~28층 규모 아파트 5328세대를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혁신도시가 대규모 고층 아파트 숲으로 변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녹지 조성 계획이 거의 없어 주민들을 위한 주거의 질은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데 더욱 심각성이 있다. 전체 부지 가운데 아파트가 87.1%를 차지하는 가운데 도로·완충녹지·학교용지 등 공공용지는 모두 합해야 10% 남짓에 불과하다. 더구나 단지 내에 근린공원이나 녹지가 전혀 없어 콘크리트 단지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계획인구를 늘리고 세대당 인구수를 낮춘 대목에서는 아파트 세대수를 최대한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꼼수를 엿볼 수 있다. 부영주택은 계획인구를 기존보다 9058명(18.3%)이나 늘리고 세대당 인구수는 2.5명에서 1.7명으로 낮춰 5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명분으로 삼았다.

사업주의 계획대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공원 등 공공용지는 그대로인데 아파트 숲이 돼 기존 혁신도시 거주민들도 숨 쉬기 힘든 도시가 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나주시는 한전공대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영주택의 사업 계획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러니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사업주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나주시는 어찌해서 혁신도시가 아파트 숲이 되는 것을 방치한 채 부영주택에 질질 끌려다니는가.

'빚 1조 원 시대' 광주시 재정건전성 강화해야

광주시의 전체 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수가 크게 늘지 않는 지역 경제구조에서 과도한 부채는 결국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 공개된 광주시의회의 제3차 추경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의 현재 채무는 9591억 원이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제출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500억 원 공채를 포함하면 전체 채무는 1조59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에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마련을 위해 1800억 원의 공모 공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니 채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매년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2025년에는 채무 규모가 무려 1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채무 관리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물론 광주시는 채무 1조 원 돌파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것으로, 타 시도들도 코로나19 지원으로 지방채를 늘리는 실정이라고 설명한다. 올해 말 기준 채무 비율도 전년도보다 1.34%p 감소한 15.28%로, 행안부 관리 기준인 25%보다 9.72%p 낮고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도 채무 건전성이 2위라고 강조한다.

그렇다고 채무의 건전성이 확보되거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가계 경제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채무도 재정 운영의 걸림돌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광주시는 예산 운용에 있어 방만한 부분이 없는지 촘촘하게 살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과감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채무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엄격한 관리와 통제하에 관성적으로 공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하는 재정 운용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시는 과도한 공공 채무가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無 等 鼓

비혼 출산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구절은 대중가요 노랫말에도 나온다. '비혼'이 흔한 요즘 세태의 단면을 잘 보여 주는 말이 아닌가 싶다. 비혼자 수가 많다 보니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비혼 상태의 출산을 법적·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심지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나라도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면서 '비혼 출산'이 이슈가 되고 있다.

고대인들이야 시험관 아기시술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리스신화에는 비혼 출산에 관한 얘기가 있다. '전쟁의 여신'이자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 갑옷을 수리하려고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갔다.

평소 아테나를 좋아했던 헤파이스토스는 기꺼운 마음으로 갑옷을 수리해 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억눌렀던 음심이 발동하면서 갑자기 아테나를 덮치게 된다. 하지만 호락호락 당할 것 같았으면 어찌 '전쟁의 여신'이라는 호칭이 붙었겠는가. 덮치려는 자와 밀쳐내려는 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사이 헤파이스토스가 그만 정액을 아테나의 허벅지에 묻히게 된다.

아테나는 정액을 천으로 닦아서 땅에 내던졌고, 그 정액을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가 받아 아기가 태어났다. 굳이 현대적으로 보면 헤파이스토스는 정자 제공자인 셈이고, 가이아는 시험관이며, 아테나는 비혼모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특이한 출생 이력을 가진 이가 에리크토니오스이다. 졸지에 처녀가 애를 가진 셈이 됐지만 아테나는 당당히 어미임을 인정했다. 상반신은 인간 남자이나 하반신은 용의 모습을 하고 태어난 에리크토니오스는 아테네의 왕이 됐으며, 아테나는 아테네를 지키는 수호신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다수가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혼'과 '만혼'의 급증에 따른 결혼·출산율의 저하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여성의 사회 활동 보편화에 따른 전통적 결혼관의 변화에 대비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사유리처럼 비혼 출산을 고민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채희종 사회부장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